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5월호

Contents

| | |
|--------------------------|----|
| 〈통계 요약〉 | 1 |
| I. 일본 무역 동향 | |
| 1. 한일 무역 동향 | 2 |
|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5 |
|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 |
|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9 |
|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10 |
|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 |
|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13 |
|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15 |
|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 |
|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8 |
|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23 |
|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5 |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57,833 | 12.9 | 60,342 | 18.6 | -2,509 |
| 일본 부분 | 2,640 | 6.0 | 4,879 | 0.7 | -2,239 |
| 일본 비중 | 4.6 | | 8.1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 2021년 4월 | 2022년 4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7,180,252 | 8,075,671 | 12.5 |
| 수입(백만¥, %) | 6,953,491 | 8,918,451 | 28.3 |
| 수지(백만¥, %) | 226,761 | -842,780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5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2년 1월 | | 2022년 2월 | | 2022년 3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일본 전체(억¥) | 6,988 | 4,768 | 7,613 | 2,604 | 7,589 | 6,464 |
| 한국 부분(억¥) | -229 | 69 | -168 | 102 | 73 | -417 |
| 한국 비중(%) | - | 1.4 | - | 3.9 | 1.0 |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3월 8일, 4월 8일, 5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4월 상황

| 한국방문 외국인 (명, %) | | |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 | | |
|-----------------|---------|---------|-------|-----------------|---------|---------|--------|
| | 2021년4월 | 2022년4월 | 증감률 | | 2021년4월 | 2022년4월 | 증감률 |
| 전체(교포 포함) | 70,112 | 127,919 | 82.4 | 전체 | 10,853 | 139,500 | 1185.4 |
| 방한 일본인 | 872 | 2,231 | 155.8 | 방일 한국인 | 1,076 | 7,700 | 615.6 |
| 일본인 비중 | 1.24 | 1.74 | | 한국인 비중 | 9.91 | 5.52 |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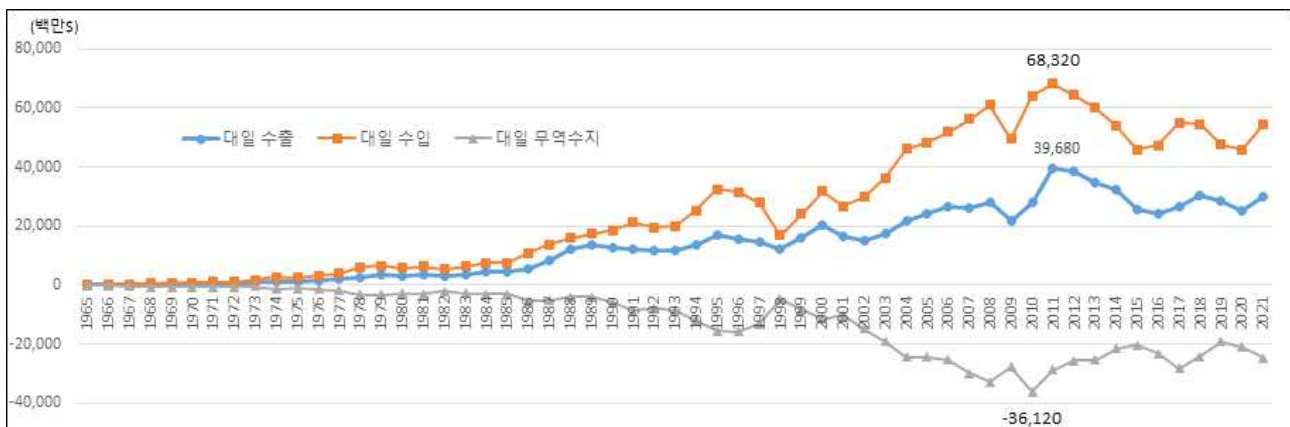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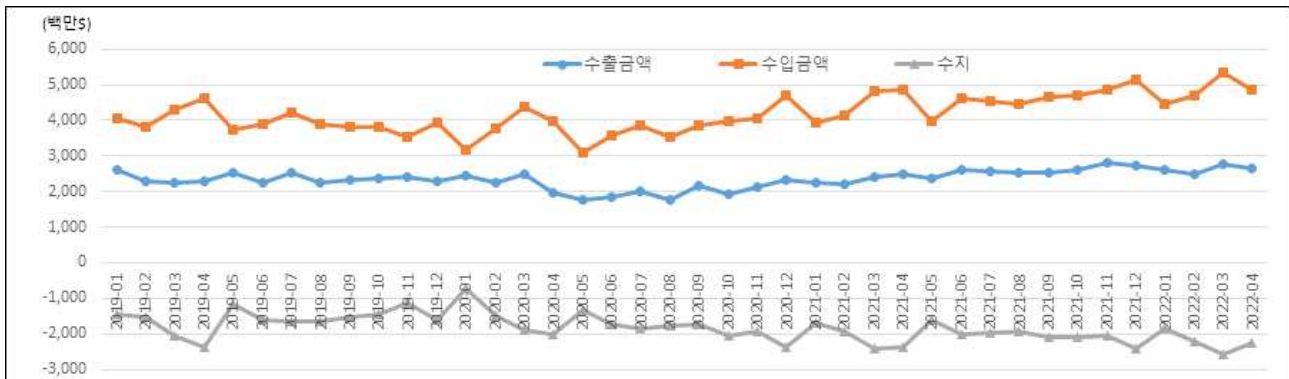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 및 수입이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4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4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4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0.7%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 수출(백만\$, %) | | 수입(백만\$, %) | | 수지(백만\$)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한국 전체 | 57,833 | 12.9 | 60,342 | 18.6 | -2,509 |
| 일본 부분 | 2,640 | 6.0 | 4,879 | 0.7 | -2,239 |
| 일본 비중 | 4.6 | | 8.1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4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하여 578.3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6.0% 증가하여 26.4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4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하여 603.4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0.7% 증가하여 48.8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4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25.1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2.4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4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8.1%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4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4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 순위 | 품목명 | 2021년 4월(백만\$, %) | | | 2022년 4월(백만\$, %) | | |
|----|---------|-------------------|-------|--------|-------------------|-------|--------|
| |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출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2,490 | 25.4 | -2,356 | 2,640 | 6.0 | -2,239 |
| 1 | 광물성연료 | 419 | 197.4 | 331 | 546 | 30.4 | 481 |
| 2 | 철강제품 | 286 | 16.7 | -214 | 332 | 15.9 | -452 |
| 3 | 석유화학제품 | 150 | 55.6 | -210 | 231 | 53.6 | -42 |
| 4 | 정밀화학제품 | 218 | 4.1 | -182 | 229 | 4.8 | -200 |
| 5 | 전자부품 | 155 | 11.3 | -490 | 178 | 14.7 | -474 |
| 6 | 산업용전자제품 | 106 | -13.9 | -162 | 133 | 26.1 | -106 |
| 7 | 농산물 | 122 | 20.9 | 102 | 102 | -16.6 | 79 |
| 8 | 금속광물 | 193 | 48.5 | 118 | 89 | -54.1 | -43 |
| 9 | 비철금속제품 | 61 | 57.1 | -88 | 71 | 16.6 | -94 |
| 10 | 산업기계 | 59 | -9.4 | -113 | 69 | 15.8 | -108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4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 순위 | 품목명 | 2021년 4월(백만\$, %) | | | 2022년 4월(백만\$, %) | | |
|----|---------|-------------------|-------|--------|-------------------|-------|--------|
| |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수입금액 | 증감률 | 수지금액 |
| | 총계 | 4,845 | 21.5 | -2,356 | 4,879 | 0.7 | -2,239 |
| 1 | 철강제품 | 499 | 2.0 | -214 | 784 | 57.0 | -452 |
| 2 | 전자부품 | 645 | 37.2 | -490 | 652 | 1.0 | -474 |
| 3 | 정밀기계 | 691 | 48.5 | -640 | 619 | -10.3 | -576 |
| 4 | 정밀화학제품 | 400 | 2.4 | -182 | 429 | 7.4 | -200 |
| 5 | 석유화학제품 | 359 | 84.2 | -210 | 273 | -24.0 | -42 |
| 6 | 산업용전자제품 | 267 | -13.9 | -162 | 239 | -10.8 | -106 |
| 7 | 플라스틱제품 | 221 | 9.9 | -149 | 210 | -4.7 | -150 |
| 8 | 산업기계 | 172 | 9.5 | -113 | 177 | 3.1 | -108 |
| 9 | 기초산업기계 | 231 | -2.1 | -169 | 176 | -23.7 | -120 |
| 10 | 비철금속제품 | 149 | 28.2 | -88 | 165 | 11.2 | -94 |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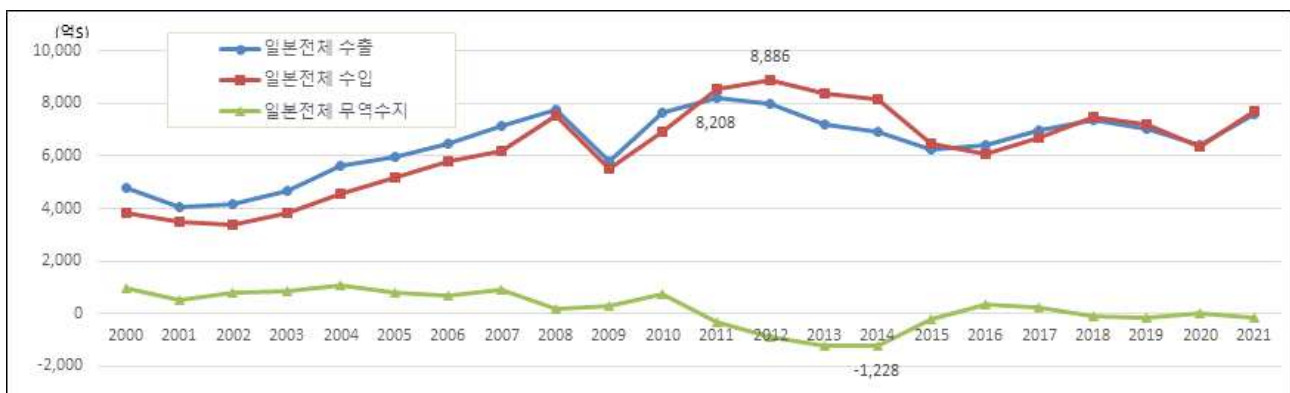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53.6%), 광물성연료(30.4%)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54.1%), 농산물(-16.6%)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제품(57.0%), 비철금속제품(11.2%) 등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24.0%), 기초산업기계(-23.7%) 등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상황

| | 2021년 4월 | 2022년 4월 | 증감률 |
|------------|-----------|-----------|------|
| 수출(백만¥, %) | 7,180,252 | 8,075,671 | 12.5 |
| 수입(백만¥, %) | 6,953,491 | 8,918,451 | 28.3 |
| 수지(백만¥, %) | 226,761 | -842,780 | -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5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자동차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하여 8조 757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8.3% 증가하여 8조 9,18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2,268억 엔 흑자에서 당월 8,428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8%, 수입의 43.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7,154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18.4%, 수입의 18.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685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7%,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670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5%, 수입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017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4%, 수입의 3.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683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6%, 수입의 9.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454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6%, 수입의 2.9%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4%,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지역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수입(백만¥, %) | | | 수지(백만¥,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수지금액 | 증감률 |
| 총액 | 8,075,671 | 100.0 | 12.5 | 8,918,451 | 100.0 | 28.3 | -842,780 | - |
| 아시아 | 4,584,180 | 56.8 | 10.3 | 3,868,824 | 43.4 | 10.9 | 715,356 | 7.1 |
| 중국 | 1,489,081 | 18.4 | -5.9 | 1,657,557 | 18.6 | -5.5 | -168,476 | -1.7 |
| 홍콩 | 376,044 | 4.7 | 15.0 | 9,041 | 0.1 | -28.6 | 367,003 | 16.8 |
| 대만 | 605,098 | 7.5 | 22.6 | 403,387 | 4.5 | 24.9 | 201,711 | 18.2 |
| 대한민국 | 599,442 | 7.4 | 15.8 | 331,161 | 3.7 | 12.3 | 268,281 | 20.5 |
| 싱가포르 | 265,534 | 3.3 | 41.7 | 106,285 | 1.2 | 60.6 | 159,249 | 31.4 |
| 태국 | 366,123 | 4.5 | 16.7 | 261,272 | 2.9 | 9.1 | 104,851 | 41.3 |
| 말레이시아 | 178,535 | 2.2 | 16.8 | 251,092 | 2.8 | 38.6 | -72,557 | 155.7 |
| 인도네시아 | 148,019 | 1.8 | 43.3 | 330,232 | 3.7 | 95.9 | -182,213 | 179.3 |
| 필리핀 | 126,122 | 1.6 | 26.6 | 112,289 | 1.3 | 16.7 | 13,833 | 308.4 |
| 베트남 | 204,621 | 2.5 | 6.5 | 256,806 | 2.9 | 13.0 | -52,185 | 48.3 |
| 인도 | 145,387 | 1.8 | 19.3 | 68,857 | 0.8 | 14.2 | 76,530 | 24.2 |
| 대양주 | 222,277 | 2.8 | 11.9 | 814,372 | 9.1 | 87.2 | -592,095 | 150.5 |
| 호주 | 168,292 | 2.1 | 5.3 | 727,056 | 8.2 | 90.6 | -558,764 | 152.2 |
| 뉴질랜드 | 27,416 | 0.3 | 4.2 | 34,352 | 0.4 | 3.7 | -6,936 | 2.0 |
| 북미 | 1,607,053 | 19.9 | 17.7 | 1,022,302 | 11.5 | 17.9 | 584,751 | 17.4 |
| 미국 | 1,499,656 | 18.6 | 17.5 | 854,246 | 9.6 | 15.4 | 645,410 | 20.6 |
| 캐나다 | 107,397 | 1.3 | 20.4 | 167,140 | 1.9 | 32.8 | -59,743 | 62.9 |
| 중남미 | 285,371 | 3.5 | 9.4 | 394,182 | 4.4 | 48.7 | -108,811 | 2400.5 |
| 서유럽 | 925,533 | 11.5 | 19.9 | 1,129,259 | 12.7 | 22.5 | -203,726 | 36.1 |
| 독일 | 206,861 | 2.6 | 6.4 | 256,361 | 2.9 | 26.1 | -49,500 | 453.8 |
| 영국 | 114,628 | 1.4 | 26.4 | 72,459 | 0.8 | 8.1 | 42,169 | 78.4 |
| 프랑스 | 72,908 | 0.9 | 10.2 | 117,106 | 1.3 | 30.5 | -44,198 | 87.2 |
| 네덜란드 | 131,453 | 1.6 | 9.1 | 44,864 | 0.5 | 33.5 | 86,589 | -0.4 |
| 이탈리아 | 61,980 | 0.8 | 20.6 | 136,685 | 1.5 | 40.2 | -74,705 | 62.1 |
| 벨기에 | 78,066 | 1.0 | 6.7 | 80,805 | 0.9 | -7.8 | -2,739 | -81.1 |
| 스위스 | 55,905 | 0.7 | 34.4 | 81,367 | 0.9 | -2.6 | -25,462 | -39.3 |
| 스웨덴 | 16,321 | 0.2 | 28.6 | 40,859 | 0.5 | 35.7 | -24,538 | 40.9 |
| 아일랜드 | 52,192 | 0.6 | 411.8 | 62,586 | 0.7 | 11.2 | -10,394 | -77.5 |
| 스페인 | 32,034 | 0.4 | 30.0 | 93,928 | 1.1 | 105.0 | -61,894 | 192.2 |
|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 147,590 | 1.8 | -13.6 | 259,454 | 2.9 | 39.9 | -111,864 | 664.1 |
| 중동 | 212,288 | 2.6 | 19.8 | 1,283,216 | 14.4 | 91.3 | -1,070,928 | 117.0 |
| 아프리카 | 91,378 | 1.1 | 14.4 | 146,842 | 1.6 | 21.8 | -55,464 | 36.1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5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개 품목 중 수출은 9개 품목 전부가, 수입은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32.0%), 기타(25.7%), 원료별제품(24.3%)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기타(3.4%), 원료별제품(2.7%), 전기기기(1.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09.0%), 화학제품(26.5%), 식료품(22.0%)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5.2%)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9.0%), 화학제품(3.0%), 식료품(2.1%)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4월 품목별 상황

| | 수출(백만¥, %) | | | | 수입(백만¥, %) | | | |
|---------|------------|-------|-------|-------|------------|-------|-------|-------|
| | 수출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수입금액 | 구성비 | 증감률 | 증감기여도 |
| 총액 | 8,075,671 | 100.0 | 12.5 | 12.5 | 8,918,451 | 100.0 | 28.3 | 28.3 |
| 1 식료품 | 97,378 | 1.2 | 14.0 | 0.2 | 814,843 | 9.1 | 22.0 | 2.1 |
| 2 원료품 | 147,866 | 1.8 | 4.0 | 0.1 | 672,391 | 7.5 | 12.3 | 1.1 |
| 3 광물성연료 | 144,368 | 1.8 | 132.0 | 1.1 | 2,528,094 | 28.3 | 109.0 | 19.0 |
| 4 화학제품 | 1,036,238 | 12.8 | 8.5 | 1.1 | 999,777 | 11.2 | 26.5 | 3.0 |
| 5 원료별제품 | 990,147 | 12.3 | 24.3 | 2.7 | 782,986 | 8.8 | 11.0 | 1.1 |
| 6 일반기계 | 1,546,110 | 19.1 | 6.6 | 1.3 | 688,045 | 7.7 | 8.4 | 0.8 |
| 7 전기기기 | 1,395,835 | 17.3 | 8.7 | 1.6 | 1,222,240 | 13.7 | 7.3 | 1.2 |
| 8 수송용기기 | 1,535,566 | 19.0 | 4.9 | 1.0 | 271,658 | 3.0 | -5.2 | -0.2 |
| 9 기타 | 1,182,165 | 14.6 | 25.7 | 3.4 | 938,417 | 10.5 | 1.8 | 0.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5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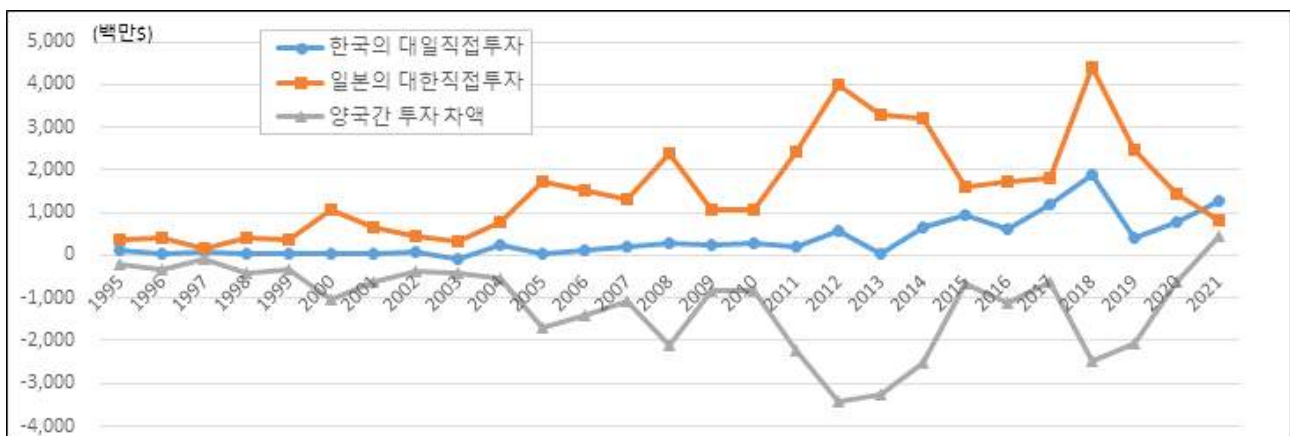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 2022년 1월 | | 2022년 2월 | | 2022년 3월 | |
|-----------|-----------------|-----------------|-----------------|-----------------|-----------------|-----------------|
|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대외직접투자 (Net) | 대내직접투자 (Net) |
| 일본 전체(억¥) | 6,988 | 4,768 | 7,613 | 2,604 | 7,589 | 6,464 |
| 한국 부분(억¥) | -229 | 69 | -168 | 102 | 73 | -417 |
| 한국 비중(%) | - | 1.4 | - | 3.9 | 1.0 |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3월 8일, 4월 8일, 5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2월 7,613억 엔에서 3월 7,589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2월 -168억 엔에서 3월 73억 엔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3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0%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2월 2,604억 엔에서 3월 6,464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2월 102억 엔에서 3월 -417억 엔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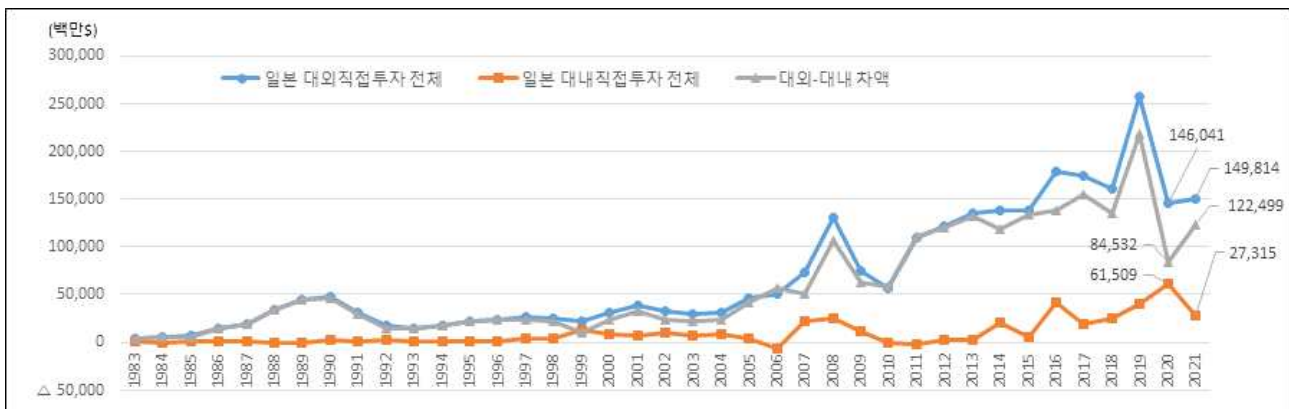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3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7,589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6,464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589억 엔(실행 49,660; 회수 42,071)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유럽(51.2%), 아시아(15.1%), 북미(12.2%), 중남미(10.1%)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중동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대외직접투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영국(1,451억 엔), 미국(873억 엔) 등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464억 엔(실행 48,849; 회수 42,385)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유럽(79%), 아시아(39.9%), 대양주(10.2 %) 등으로

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북미, 중남미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를 많이 한 곳은 영국(5,243억 엔), 싱가포르(1,214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3월 상황

| | 대외직접투자(억 엔, %) | | | | 대내직접투자(억 엔, %) | | | |
|-------------|-----------------|------------------|--------------|--------------|-----------------|------------------|---------------|--------------|
| | 실행 Execution | 회수 Withdrawal | 순투자 Net | 순투자 구성비 | 실행 Execution | 회수 Withdrawal | 순투자 Net | 순투자 구성비 |
| 합계 | 49,660 | 42,071 | 7,589 | 100.0 | 48,849 | 42,385 | 6,464 | 100.0 |
| 아시아 | 10,415 | 9,272 | 1,143 | 15.1 | 10,065 | 7,485 | 2,580 | 39.9 |
| 중국 | 1,152 | 579 | 573 | 7.6 | 1,745 | 1,027 | 718 | 11.1 |
| 홍콩 | 622 | 352 | 271 | 3.6 | 1,384 | 700 | 684 | 10.6 |
| 대만 | 313 | 208 | 104 | 1.4 | 134 | 28 | 106 | 1.6 |
| 한국 | 128 | 55 | 73 | 1.0 | 190 | 607 | -417 | -6.5 |
| 싱가포르 | 5,921 | 6,819 | -898 | -11.8 | 5,666 | 4,452 | 1,214 | 18.8 |
| 태국 | 621 | 297 | 324 | 4.3 | 877 | 644 | 232 | 3.6 |
| 인도네시아 | 442 | 424 | 18 | 0.2 | 18 | 12 | 6 | 0.1 |
| 말레이시아 | 227 | 80 | 147 | 1.9 | 24 | 13 | 11 | 0.2 |
| 필리핀 | 138 | 131 | 7 | 0.1 | 1 | — | 1 | 0.0 |
| 베트남 | 497 | 227 | 270 | 3.6 | 5 | — | 5 | 0.1 |
| 인도 | 223 | 22 | 201 | 2.6 | 0 | — | 0 | 0.0 |
| 북미 | 19,053 | 18,131 | 923 | 12.2 | 9,290 | 10,618 | -1,327 | -20.5 |
| 미국 | 18,646 | 17,773 | 873 | 11.5 | 9,280 | 10,618 | -1,338 | -20.7 |
| 캐나다 | 407 | 357 | 50 | 0.7 | 10 | — | 10 | 0.2 |
| 중남미 | 1,875 | 1,105 | 770 | 10.1 | 930 | 1,666 | -736 | -11.4 |
| 멕시코 | 804 | 165 | 638 | 8.4 | — | — | — | — |
| 브라질 | 116 | 69 | 47 | 0.6 | — | — | — | — |
| 케이만제도 | 224 | 158 | 65 | 0.9 | 832 | 1,607 | -775 | -12.0 |
| 대양주 | 990 | 694 | 297 | 3.9 | 1,488 | 827 | 661 | 10.2 |
| 호주 | 804 | 595 | 209 | 2.8 | 1505 | 827 | 678 | 10.5 |
| 뉴질랜드 | 111 | 88 | 23 | 0.3 | 2 | — | 2 | 0.0 |
| 유럽 | 16,112 | 12,227 | 3,884 | 51.2 | 26,923 | 21,788 | 5,136 | 79.5 |
| 독일 | 2,411 | 2,129 | 282 | 3.7 | 2,126 | 1,862 | 264 | 4.1 |
| 영국 | 4,699 | 3,248 | 1,451 | 19.1 | 14,402 | 9,160 | 5,243 | 81.1 |
| 프랑스 | 658 | 325 | 333 | 4.4 | 1019 | 1286 | -267 | -4.1 |
| 네덜란드 | 1,147 | 826 | 321 | 4.2 | 5,597 | 5,171 | 425 | 6.6 |
| 이탈리아 | 297 | 5 | 293 | 3.9 | 905 | 903 | 1 | 0.0 |
| 벨기에 | 2,240 | 2,060 | 180 | 2.4 | 1,103 | 1,217 | -114 | -1.8 |
| 룩셈부르크 | 1,778 | 1,288 | 490 | 6.5 | 149 | 1 | 148 | 2.3 |
| 스위스 | 104 | 81 | 23 | 0.3 | 1,036 | 396 | 641 | 9.9 |
| 스웨덴 | 174 | 83 | 90 | 1.2 | 15 | 12 | 3 | 0.0 |
| 스페인 | 78 | 283 | -206 | -2.7 | 147 | 153 | -6 | -0.1 |
| 러시아 | 368 | 1 | 367 | 4.8 | 0 | — | 0 | 0.0 |
| 중동 | 95 | 130 | -35 | -0.5 | 3 | 2 | 1 | 0.0 |
| 아프리카 | 1,120 | 513 | 607 | 8.0 | 150 | — | 150 |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5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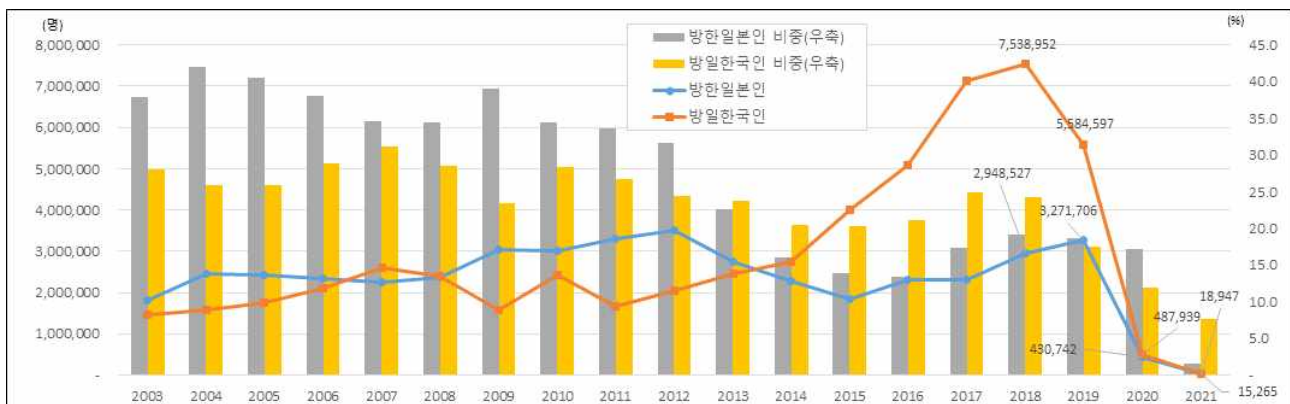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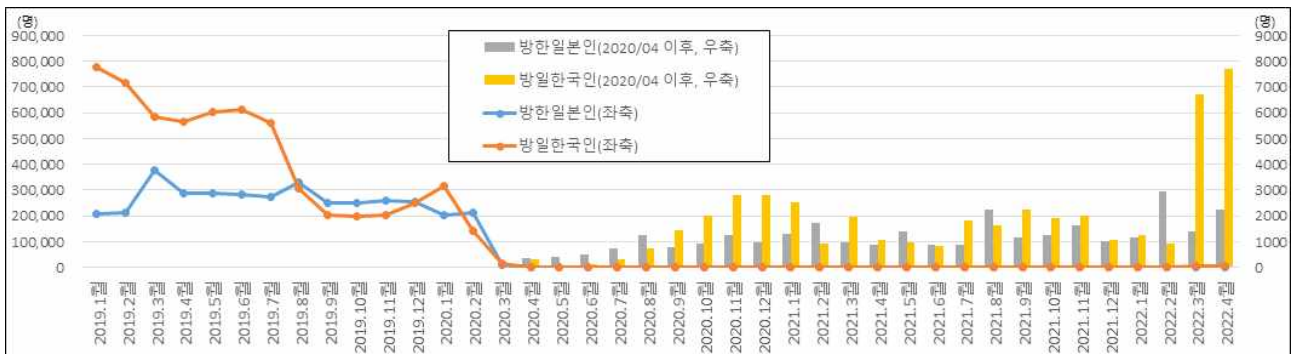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4월 2,231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13명, 3월 6,700명, 4월 7,7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4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4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모두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4월 상황

| 한국방문 외국인 (명, %) | | |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 | | |
|-----------------|---------|---------|-------|-----------------|---------|---------|--------|
| | 2021년4월 | 2022년4월 | 증감률 | | 2021년4월 | 2022년4월 | 증감률 |
| 전체(교포 포함) | 70,112 | 127,919 | 82.4 | 전체 | 10,853 | 139,500 | 1185.4 |
| 방한 일본인 | 872 | 2,231 | 155.8 | 방일 한국인 | 1,076 | 7,700 | 615.6 |
| 일본인 비중 | 1.24 | 1.74 | | 한국인 비중 | 9.91 | 5.52 |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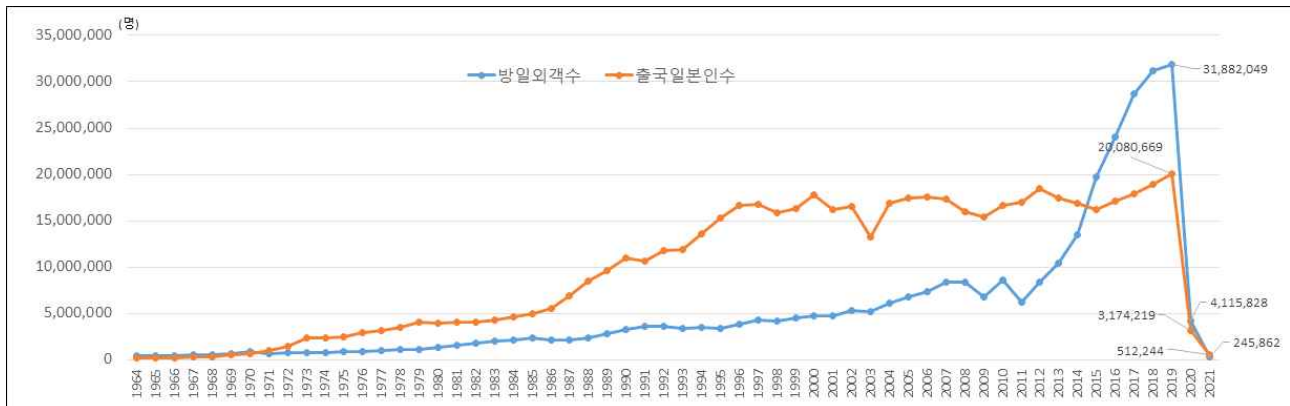
- 2022년 4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127,91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4%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2,23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8%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4월 1.24%에서 2022년 4월 1.74%로 증가하였음
- 2022년 4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39,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5.4%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7,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5.6%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4월 9.91%에서 2022년 4월 5.52%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4월 상황

- <표10>은 2022년 4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4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39,500명으로 2019년동월(2,926,685명)대비 95.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10,853명)대비 1185.4%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7,70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15.6%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22,400명으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84.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2,8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91.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11,700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809.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 수는 8,500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909.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29,800명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8,875.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5,2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791.9%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4월 상황

| 국가·지역 | 2019년 4월 | | 2021년 4월 | | 2022년 4월 | |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
|-------|--------------|-----------|--------------|-----------|--------------|-----------|-----------------------------|-----------------------------|
| | 방일외객수 (명) | 비중 (%) | 방일외객수 (명) | 비중 (%) | 방일외객수 (명) | 비중 (%) | | |
| 전체 | 2,926,685 | 100.0 | 10,853 | 100.0 | 139,500 | 100.0 | -95.2 | 1185.4 |
| 한국 | 566,624 | 19.4 | 1,076 | 9.9 | 7,700 | 5.5 | -98.6 | 615.6 |
| 중국 | 726,132 | 24.8 | 3,271 | 30.1 | 22,400 | 16.1 | -96.9 | 584.8 |
| 대만 | 403,467 | 13.8 | 405 | 3.7 | 2,800 | 2.0 | -99.3 | 591.4 |
| 홍콩 | 194,806 | 6.7 | 59 | 0.5 | 1,300 | 0.9 | -99.3 | 2103.4 |
| 태국 | 164,817 | 5.6 | 154 | 1.4 | 3,200 | 2.3 | -98.1 | 1977.9 |
| 싱가포르 | 36,704 | 1.3 | 40 | 0.4 | 600 | 0.4 | -98.4 | 1400.0 |
| 말레이시아 | 46,092 | 1.6 | 95 | 0.9 | 1,100 | 0.8 | -97.6 | 1057.9 |
| 인도네시아 | 39,768 | 1.4 | 198 | 1.8 | 11,700 | 8.4 | -70.6 | 5809.1 |
| 필리핀 | 69,266 | 2.4 | 212 | 2.0 | 8,500 | 6.1 | -87.7 | 3909.4 |
| 베트남 | 55,295 | 1.9 | 332 | 3.1 | 29,800 | 21.4 | -46.1 | 8875.9 |
| 인도 | 18,376 | 0.6 | 555 | 5.1 | 3,600 | 2.6 | -80.4 | 548.6 |
| 호주 | 70,504 | 2.4 | 95 | 0.9 | 1,100 | 0.8 | -98.4 | 1057.9 |
| 미국 | 170,247 | 5.8 | 583 | 5.4 | 5,200 | 3.7 | -96.9 | 791.9 |
| 캐나다 | 38,897 | 1.3 | 105 | 1.0 | 700 | 0.5 | -98.2 | 566.7 |
| 멕시코 | 8,222 | 0.3 | 39 | 0.4 | 200 | 0.1 | -97.6 | 412.8 |
| 영국 | 44,537 | 1.5 | 185 | 1.7 | 1,600 | 1.1 | -96.4 | 764.9 |
| 프랑스 | 46,005 | 1.6 | 123 | 1.1 | 1,700 | 1.2 | -96.3 | 1282.1 |
| 독일 | 27,829 | 1.0 | 139 | 1.3 | 1,600 | 1.1 | -94.3 | 1051.1 |
| 이탈리아 | 24,062 | 0.8 | 91 | 0.8 | 800 | 0.6 | -96.7 | 779.1 |
| 스페인 | 13,858 | 0.5 | 79 | 0.7 | 400 | 0.3 | -97.1 | 406.3 |
| 러시아 | 13,787 | 0.5 | 132 | 1.2 | 800 | 0.6 | -94.2 | 506.1 |
| 중동지역 | 13,352 | 0.5 | 83 | 0.8 | 400 | 0.3 | -97.0 | 381.9 |
| 기타 | 134,038 | 4.6 | 2,802 | 25.8 | 32,300 | 23.2 | -75.9 | 1052.7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5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5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 | 2020년 | 2021년 | 2021년 7-9월 | 2021년 10-12월 | 2022년 1-3월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2022년 4월 |
|----------------------------------|------------------|------------------|------------------|------------------|------------------|------------------|------------------|------------------|------------------|
|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 -4.5 | 1.7 | 1.2 | 0.4 | 0.2 | | | | |
|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 -1.8 | 1.2 | 2.0 | 0.1 | -0.6 | -0.7 | -0.8 | -0.4 | |
|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 -9.5 | 13.2 | 19.2 | 9.5 | 4.4 | 6.9 | 0.8 | 5.5 | |
|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 81.5 -9.9 | 85.6 5.0 | 86.7 7.2 | 85.5 6.1 | 87.3 4.9 | 82.0 2.1 | 87.2 6.3 | 92.7 6.0 | |
|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 5.5 | -0.9 | -9.3 | -13.9 | -9.9 | -28.3 | -11.8 | -2.2 | |
|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 -11.7 -6.4 | 12.2 5.1 | 13.6 7.8 | 1.3 1.4 | -0.8 P 1.3 | -4.0 4.8 | 2.7 -0.9 | -1.4 P 0.0 | P -4.4 P -9.0 |
|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 -10.4 | 5.6 | 5.4 | 0.9 | -0.6 | -0.8 | 0.5 | -1.7 | |
|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 -27.3 | 41.8 | 35.1 | 24.7 | | | | | |
|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 7,773 -7.2 | 6,030 -22.4 | 1,447 -28.4 | 1,539 -12.1 | 1,504 -3.2 | 452 -4.6 | 459 2.9 | 593 -6.4 | 486 1.8 |
|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 2.8 | 2.8 | 2.8 | 2.7 | 2.7 | 2.8 | 2.7 | 2.6 | |
|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 -1.2 0.0 | 4.8 -0.2 | 6.1 -0.2 | 8.8 0.5 | 9.6 0.9 | 9.2 0.5 | 9.8 0.9 | 9.7 1.2 | P 10.0 2.5 |
| <금융> 넷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 22,705 106.73 | 28,836 109.89 | 28,553 110.09 | 28,810 113.70 | 27,156 116.32 | 27,903 114.83 | 27,066 115.20 | 26,584 118.51 | 27,043 126.04 |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3월, 4월, 5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3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4.1%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3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7%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험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약세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험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 경우는 회복되고 있음
- 외식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1년 10-12월기는 전기(前期)대비 3.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동(同) 3.4% 증가, 비제조업이 동(同) 3.3%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대체적으로 보험상태로 되어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상태가 보이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험상태임

- 자가주택 착공은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임대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험상태임
- 분양주택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총 호수는 3월에 전월대비 6.3% 증가인 연율 92.7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험상태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약세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최근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3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1% 증가, 4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3.4% 감소, 3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7.9%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보정예산의 효과도 있어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4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5.2%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약세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3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3월에 전월대비 0.3%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3월에 전월 대비 0.4%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4월은 전월대비 5.8% 증가, 5월은 전월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생산용 기계 및 전자제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에서의 감염재확대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 등에 의한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상장기업의 2022년 1-3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년대

비 이익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3월 593건 이후 4월은 486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3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낮아져 2.6%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취업률은 보합권내이며, 신규구인수는 회복되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음
 - 4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1.2%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상승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기조를 ‘국제운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4월에는 전월대비 0.9% 포인트 상승하여 93.7%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당분간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로 추이하다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7,100엔대에서 25,700엔대로 하락하였다가 27,000엔대로 상승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28엔대에서 127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130엔대까지

엔저로 추이한 후 127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1.1%(4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6.6%(4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6%(4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5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5월 25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코로나극복·신시대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4월 26일에 마무리한 ‘코로나 재난에서의 「원유가격·물가급등 등 종합긴급대책」’을 실행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격 및 물가의 급등 등에 따른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에 긴급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재난으로부터의 경제사회활동의 회복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대 및 원유가격·물가의 새로운 급등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비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보정예산의 조기성립에 노력함
- 그 위에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그리고 골태방침(骨太方針)2022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이를 전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구체화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국제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

- 국제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신흥국의 노동력을 받아들인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세계경제는 계속 성장해왔음
 - 그러나 오늘날 신흥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선진국에서는 고용불안과 격차가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미중 무역 마찰, COVID-19과 전쟁 등으로 냉전 후 국제 경제 질서는 전화기를 맞이했으며, 경제적 수단의 무기화가 진행되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원 및 식량의 주요 산지로 공급 불안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음
 - 체제가 다른 국가들간의 상호의존과 경쟁이 일체로 진행되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오늘날 기후변화나 디지털사회 기반 만들기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협조하는 구조가 필요함
- 러시아산 석유 금수 및 수출금지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5월 9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를 원칙적으로 금수하겠다고 밝혔음
 - 5월 13일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수출금지하는 외환법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했으며, 양자컴퓨터나 3D프린터 등과 관련 물품·기술이 대상임

(출처: 산케이신문, 2022.05.09.; 닛케이신문, 2022.05.13.; 아사히신문, 2022.05.02.; 마이니치신문, 2022.05.02.)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탈탄소 대책 및 관광산업 관련 동향

- 반도체에서의 미국과의 협력 의향 표명 및 경제안보법
 - 5월 4일 방미 중이었던 하기우다 코이치 경제산업상은 미일 협조로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에 임할 의향을 표명했음

- 미국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반도체 개발이나 생산의 국내 체제 약세에 위기감이 있기 때문으로, 일본 기업들은 1990년 경에는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 정도의 점유율에 머무르고 있음
 -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킴
 - 미일 양국 정부는 5월 23일 정상회담에서 각료로 구성된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7월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5월 11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했는데,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물자로 공급망을 강화해 기간인프라 보호에 임하는 체제를 갖추
 - 경제안보법은 공급망 구축,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민관 연구, 특허 비공개 등 4가지로 구성됨
- 탈탄소 목표 실현을 위한 기금 신설
- 일본정부는 탈탄소 목표 실현을 위해 20조 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함
 - 10년간에 걸쳐 차세대 송전망이나 에너지 절약 주택 등에 기업이나 가정의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값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정함
 - 경제산업성은 탈탄소를 달성하려면 2030년 시점에서 관민 17조 엔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시산함
 - 기금이 지출하는 투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전력을 수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내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송전망)가 핵심임
-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방침을 표명함
- 한편, 5월 26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도내에서 강연하고, 6월 10일부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방침을 표명했음
 - COVID-19 감염 상황이 진정된 점을 감안해 경제활동의 단계적 재개를 단행하는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2년 만임
 -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5월 24일부터 미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투어 실증사업을 개시했음
 - 정부는 3월부터 관광 목적 이외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허용했는데, 출입국체류관리청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4월에는 25만 9,062명이 귀국·입국했으며 이 중 일본

인 귀국자는 10만 1,504명이며 외국인 유학생이 4만 6,889명, 기능실습생이 3만 7,689명이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2.05.04., 2022.05.11., 2022.05.14.; 산케이신문, 2022.05.23., 2022.05.26.; 요미우리신문, 2022.05.27.)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에너지조달 문제 및 자동차산업 동향

- 사이버 공격과 에너지 조달 문제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 자동차 기업 동향
 - 사이버 공격과 에너지 조달 불안정 문제에 대해 산케이신문이 주요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약 1/4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음
 - 에너지 가격의 국제적 급등과 3월 일본 국내의 전력수급 차질 정보 발령으로 전력 공급체계의 취약함이 드러난 것을 근거로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84개사 중 20개사가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해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재가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곳이 16개사였음
 -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현지 자본 제조업체들이 EV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일본세도 반격을 꾀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는 일본 기업이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왔으나, 전동화에서 주축으로 삼는 것이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되어왔고, EV에서는 뒤처지고 있음
 - 토요타자동차의 경우 방콕 모터쇼에서 양산 EV bZ4X와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의 EV 모델을 전시했음
 - 미쓰비시자동차도 태국 우정 당국과 함께 상용차의 EV화를 위한 실증실험을 실시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2.05.04.; 요미우리신문, 2022.05.16.)

□ 전지산업 및 반도체산업 동향

○ 음극재 생산 및 반도체 관련 기업 동향

- 토카이카본(東海カーボン)은 전기자동차(EV)용 전지에 사용하는 음극재 생산을 2024년까지 유럽에서 시작함
- 유럽은 전지의 공급망을 정비해 지산지소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토카이카본은 유럽에서 음극재 생산을 시작해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림
- 음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부재 중 하나로, EV의 항속 거리나 안전성 등 전지 성능의 향상에 빠뜨릴 수 없음
- 토카이카본의 음극재는 원료인 천연흑연에 석탄이나 석유에서 채취되는 타르의 부생성물 등을 섞어 성분을 조정하고 열처리나 표면처리를 실시해 만드는데, 원료 조달과 판매는 미쓰비시케미칼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 전지 메이커 등에 공급하고 있음
- 한편, 반도체는 폭넓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공급이 부족하면 많은 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데, 공급망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마찰,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정학 리스크에 대처하는 구조가 중요함
- 공급망 강인화를 위해서는 일본 국내 생산체제의 거점 향상이 필수적이기에 일본 국내 메이커들도 증산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
-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폐쇄하고 있었던 야마나시현 카이시의 공장에 900억 엔 규모의 투자를 실시해 2024년부터 가동시켜 전력 반도체 생산을 증강함
- 전력 반도체는 탈탄소를 향한 에너지 절약, EV 보급으로 수요가 확대되는데, 토시바·디바이스&스토리지는 2월, 이시카와현 노미시의 공장에서 약 2천억 엔을 투자해 새로운 제조동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 미쓰비시전기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설비투자액을 1,300억 엔으로 예정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2.05.25.; 산케이신문, 2022.05.23.)